

<http://dx.doi.org/10.17703/JCCT.2022.8.3.229>

JCCT 2022-5-27

## 액터 닥터: 병원으로 간 배우들

### Actor Doctor: Actors Visiting Hospitals for Care

이강임\*

Lee, Gang-Im\*

**요약** 본 논문은 예술과 의료의 융합 개념인 ‘액터 닥터’를 통해서, 배우와 그 이중으로서의 정서 돌보미에 관하여 다룬다. 처음에, 액터 닥터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에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일원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진화하는 액터 닥터 프로젝트에서, 액터 닥터는 배우 직업을 유지하면서, 전문 의료 제공자가 되는 이중 직업인을 추구한다. 액터 닥터는 따뜻한 가슴, 높은 정서 지능, 그리고 전문가적 기술을 갖춘 기능인으로서, 우리의 정서적 삶이 위협받는 이 시대에 더욱 필요성이 요구된다. 액터 닥터는 배우의 능력과 훈련을 이용해서, ‘건강 사회와 생활 복지’라는 사회적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생활 밀착 정서 돌보미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퍼포먼스 연구와 인지과학의 전망으로부터, 정서 전문가로서 일하는 액터 닥터의 개념, 역할, 기능, 기술 등을 과학적 기초 위에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어** : 연극과 의료의 융합, 퍼포먼스 연구, 인지과학, 액터 닥터, 배우 훈련, 정서, 정서 지능, 정서 돌보미

**Abstract** Through the converging concept of ‘an actor doctor,’ this paper deals with an actor and its double, the emotional care giver. In the first place, actor doctors have appeared in the medical scene as hospice volunteers. But, as a developing project, the concept of ‘an actor doctor’ leads to a professional emotional specialist who works at hospitals during the day and performing at the stage at night. In our contemporary culture, our emotional life is threatened by various social and environmental stimuli. The role of ‘an emotional specialist’ in our everyday life and hospitals is very essential to our healthy life. Against the backgrounds of the high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 systemic training, actors are qualified to embody this social vision. From the perspectives of performance studies and cognitive studies, this paper tries scientific explanations of the role, the function, and the techniques of an actor doctor. By doing so, this paper seeks to build a scientific foundation for an actor doctor as an emotional specialist.

**Key words** : Convergence of Theatre and Medicine, Performance Studies, Cognitive Science, Actor Doctor, Actor Training, Emotion, Emotional Intelligence, Emotional Care Giver

#### 1. 서론

배우와 극장을 매칭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배우와 병원을 연결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문화권에서 극장은 예술, 종교, 정치, 기술, 의료 등 중요한 사회적 영역들이 서로 연관되어 발전해 온 공간이었다. 희곡 전통의 연극이 기원한 고대 그리스 극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정회원, 호원대학교 공연미디어학부 연기전공 부교수 (제1저자)  
접수일: 2022년 4월 7일, 수정완료일: 2022년 4월 23일  
게재확정일: 2022년 4월 29일

Received: April 7, 2022 / Revised: April 23, 2022

Accepted: April 29, 2022

\*Corresponding Author: galst13@hanmail.net

Dept. of Performing Arts and Media, Howon Univ, Korea

아메리카 등에서 행해진 다양한 퍼포먼스 전통에서 연극, 정치, 종교, 그리고 의료 영역은 미분화되기도 하고, 혼합되어 있기도 했다. 연극이 과도하게 독자적 영역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극장을 현실 (reality) 탐구의 장으로 전환한 근대 연극의 이념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액터 닥터’ (an actor doctor)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이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배우와 그 이중 (an actor and its double)으로서의 정서 돌보미 (an emotional care giver)에 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액터 닥터’ 개념의 아이디어는 이론적으로, 연극사적 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실용적 측면에서, ‘액터 닥터’ 개념의 활용에 관한 이슈는 ‘건강 사회와 생활 복지’라는 비전에서 파생했다. ‘액터 닥터’ 개념은 2018년에 출발한 종로문화재단의 액터 닥터 프로그램에서 공식화되기 시작했다. 필자는 2021년 종로문화재단 액터 닥터 프로그램 4년 차 사업에 참여하면서 연극과 의료 융합 사업에 본격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다.

본 논문은 2021 액터 닥터 프로그램의 일환인 호주 ‘클라운 닥터’ (a clown doctor) 재단 관계자들과의 국제 화상 세미나와 세미나 참여 결과에 대한 반성적 고찰에서 출발했다. 논문의 기초적인 아이디어는 2021 액터 닥터 프로그램의 성과를 정리하는 온라인 줌 세미나에서 발표한 ppt 발제문을 통해 구체화 됐다. 필자는 ‘액터 닥터: (원격) 정서 보살핌과 ICT 활용’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연극, 의료, 기술의 융합에 관한 연구 결과물을 내놓았다. 그러나, 2022년 1월에 진행된 세미나는 제한된 시간 안에, 일반 온라인 참여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기획되었기 때문에, 학문적 측면을 조명하는 것은 주요 목적이 아니었다.

본 논문의 목표는 퍼포먼스 연구와 인지과학과 같은 수렴적 학문의 방법론을 네비게이션 삼아, 액터 닥터의 개념, 역할, 기능, 도구(기술) 등을 학문적·과학적 바탕 위에 정립하기 위한 지도를 그리는 것이다. 이 지도 그리기는 과학적 방법론뿐만 아니라, 해외 활동가들과의 세미나, 프로그램 연구원들과의 회의 세션, 실제 활동하고 있는 액터 닥터, 뇌과학자, 신경과 의사, VR 테크 전문가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통찰로 가능했다. 결론 부분에서 간략하게, 액터 닥터의 비전에 관한 필자의 견해를 피력하면서 본 논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 II. 본 론

### 1. 액터 닥터 개념화를 위한 지도 그리기

1) 액터 닥터 개념에 관한 하트스토밍(heartstorming)과 브레인스토밍 (brainstorming)

2021년 10월, 액터 닥터 프로그램의 선행 모델인 ‘클라운 닥터’ (a clown doctor)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호주의 휴머 파운데이션(Humour Foundation)과의 국제 화상 회의를 통해, 환자의 정서적 삶을 보살피는 정서 전문가(an emotional specialist)로서의 액터 닥터 개념과 실제에 관한 많은 아이디어를 얻게 됐다. 특히, 참석자 중, 파운데이션의 내셔널 프로그램 매니저인 레베카 카(Rebecca Carr)는 액터 닥터의 철학과 소명을 하트스토밍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필자가 액터 닥터의 개념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을 강조하다 보니, ‘지나치게 차가운’ 과학적·의학적 정보와 지식에 집중하고 있었다. 카는 클라운 닥터의 질병 인지와 지식 정도에 관한 필자의 질문에 대해 “클라운 닥터는 환자를 질병인으로 대하지 않으며, 도움이 필요한 한 명의 인격체로 여긴다”고 답했다 [1]. 카의 이러한 진술은 필자가 무엇을 간과하고 있었는지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액터 닥터’ 개념은 이미지로부터 구성되는데, 필자에게는 당시 냉철한 전문가 이미지가 우선이었지, 따뜻한 가슴을 지닌 소통 매개자로서의 액터 닥터 이미지는 부재했다. 필자가 액터 닥터의 케어 대상이 ‘질병이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확고한 행동 원리를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역으로, 휴머 파운데이션 측 참석자들은 필자의 질문에 대해, 클라운 닥터의 전문성 재고를 위해 중요한 포인트라고 코멘트했다. 그뿐만 아니라, 아티스틱 디렉터인 데이비드 시몬스(David Symons)와 CEO인 토니 워너(Tony Warner)는 클라운 닥터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운영과 행정적 과정을 브리핑함으로써, 액터 닥터의 리쿠르트, 교육 이수, 자격 과정, 병원과의 콜라보레이션,페이 이슈 등 다양한 방면에서 브레인스토밍하는 데 실제적 조언을 제공했다 [2].

2) 퍼포먼스 연구 전망에서 살펴본 ‘액터 닥터’의 개념

196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출현한 퍼포먼스 연구(performance studies)는 학제 간(interdisciplinary) 학문으로서, 세포의 움직임, 인간 행위, 기계의 작동까지 포함하는 모든 것의 ‘퍼포먼스’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수렴적 학문이다. 필자는 액터 닥터의 이미지와 개념화를 위한 지도를 그리는 데 있어서, 이러한 퍼포먼스 연구의 수렴적 방법론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퍼포먼스 연구는 분과적 경계를 가로질러, 액터 닥터의 능력과 수련의 키워드인 ‘정서 지능’ (emotional intelligence)에 수렴한다. 또한, 퍼포먼스 연구는 어떠한 행위도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액터 닥터의 ‘정서 보살핌’을 환자의 치료 과정 전반에서 설명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한다. 필자는 퍼포먼스 연구의 수렴적 방법론을 통해, ‘병원’을 배우의 이중적 “수행 공간” (performative site)으로 간주하고, 그 안에서의 배우의 수행성 (performativity)에 관하여 고찰할 것이다 [3]. 2018년 종로문화 재단 액터 닥터 양성 프로그램에 관한 기사에 “액터 닥터는 액터 (actor)와 닥터 (doctor)의 합성으로 배우의 재능을 의료 활동에 접목시켜 장기입원환자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4]. 우리가 배우와 병원의 매칭을 어색하게 느끼는 것은 배우 활동과 의료 활동이 각각 어울릴 수 없는 독립된 활동이라는 분과적 사고에서 기인한다. 특히, 병원이 드라마가 펼쳐지는 극장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16세기 근대 유럽 의료사를 살펴보면, ‘해부학 극장’에서 “대중적 이벤트”로서 (as a popular event) 의료 퍼포먼스가 실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퍼포먼스 연구의 전망에서 보면, 해부학 극장에서 열린 해부학 공개 강의는 신체와 영혼에 관해 알고자 했던 인간의 욕망이 연기하는 가장 드라마틱한 퍼포먼스 중 하나였다. 이성적 절제와 냉철함, 그리고 흥분, 호기심, 혐오, 놀라움, 경외, 공포 등의 온갖 정서들이 한 데 뒤엉킨 거대한 스펙터클이었다.

퍼포먼스 연구가인 장-마리 프라디에 (Jean-Mari Pradie)는 희곡 전통에서 아마 극장에 “과학[의료적 개념]이 난입”한 최초의 사례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 비극 경연 대회를 위해 차용한 ‘카타르시스’ (catharsis) 개념을 사용한 경우라고 주장한다 [6]. 카타르시스는 오염된 쓰레기나 배설물을 ‘정화’하고 비운다는 의미와 함께, 히포크라테스와 같은 의사들이 설사를 유도하는 하제를 지칭했던 의료적 개념이다. 카타르시스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지만, 비극의 해설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의료적 의미의 카타르시스 개념을 비극의 정수로 설명하고 있다. 중세 종교극 또한, ‘신의 현현’과 더불어

‘죄의 정화’라는 요소를 함유하고 있었다.

연극 치료사 박미리 또한, ‘카타르시스’ 개념을 통해, ‘감정 모델 연극 치료’의 역사적 바탕을 정초하고 있다 [7]. 2500년 전의 고대 그리스, 또는 중세 유럽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연극과 치료 또는 치유의 역사는 앙토냉 아르토 (Antonin Artaud)의 ‘잔혹연극,’ 예지 그로토프스키 (Jerzy Grotowski)의 ‘원천연극,’ 그리고 아우구스토 보알 (Augusto Boal)의 ‘욕망의 무지개’에 이르기까지 20세기 현대 연극에도 그 역사의 맥박이 뛰고 있다. 아르토는 도구적 이성의 만연과 전쟁의 비참함을 정화하고 치료하는 ‘페스트’ (Pest)로서 감각과 정서의 힘을 증폭시킨 잔혹연극을 통해 잔혹한 우리 삶을 온몸으로 감당하자고 주장했다. 그로토프스키는 물질적 부만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욕망에 가려진 삶의 원천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낙인된 현대적 삶의 찌꺼기들을 ‘제거’ (via negativa)하는 것이며, 배우는 이러한 의미에서 ‘신성한 배우’ (a holy actor)라고 보았다. 보알 또한,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와 고통은 계층, 성역할, 문화를 초월하여 나타나며, 연극을 건강하고 통합된 삶을 위한 치료적 도구로 인식했다. 이들 현대 연극인들은 극장이 다시 우리의 통합적 삶을 반성하고 치유하기 위한 사회문화적 이슈들이 수렴하며 요동치는 소용돌이 (vortex)임을 천명한 것이다.

### 3) ‘액터 닥터’ 개념의 현대적 선행 모델로서 ‘클라운 닥터’ 개념

한국에서 ‘액터 닥터’ 개념이 대두한 것은 매우 최근의 일이며, 앞선 해외 유사 사례로서 1970년대에 시작된 클라운 닥터 (a clown doctor)가 있다. ‘클라운 닥터’ 개념은 미국인 의사 패치 아담스 (Patch Adams)의 활동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의학계에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아담스는 클라우닝 (clowning)을 통해, 공격적으로 병원의 과도한 엄숙주의에 정면으로 맞선 의사로 평가되고 있다. 아담스는 보완 치료 (complementary therapy)의 일종인 웃음 치료 (laughter therapy)를 통해 환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했다. 신경과학적으로 웃음은 “뇌 12 신경의 하나인 제 7번 안면신경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얼굴 근육의 스트레칭”으로 “얼굴 근육의 움직임이나, 즐거운 감정을 통해 행복한 감정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소리”이다 [8]. 웃음은 그러나, 단지 얼굴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의 활동으로 폐를 확장하고 근육과 신경과 심장을 따뜻하게 해서 긴장을 풀어주는 “체내에서의 조강”이라고 할 수 있다 [9].

‘클라운 닥터’ 개념이 병원에서 출발했다면, ‘액터 닥터’ 개념은 한국 연극인들 사이에서 배우들의 복지와 사회공헌이 만나는 부분에서 도출됐다. 비교 연구 차원에서, 필자가 주목한 이슈들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첫째, 클라운 닥터의 출현이 영미문화권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배경에는 클라우닝 전통이 있다. 그리고 클라운 닥터의 클라우닝은 웃음 치료에 특화되어 있다. 클라우닝 전통이 없는 한국에서, 액터 닥터의 보완 치료 기술이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호주 휴머 파운데이션과의 세미나에서도 느꼈지만, 한국의 기술 인프라가 매우 탄탄하며, 이를 바탕으로 액터 닥터의 활동도 포스트-팬데믹과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인프라가 한국보다 뒤진 호주에서 코로나 상황과 같은 비상 상황을 맞아, 클라운 닥터가 환자를 만나는 것이 종종 거부되었다고 한다. 반면에, 필자가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사실로,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과 병동에서 호스피스 자원봉사 일원으로 소아 환자들을 만났던 액터 닥터 송정아는 줌을 통해서 환자들과 소통하고, 정서 보살핌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10]. 이러한 상황적 맥락에서, 액터 닥터 프로그램은 예술, 의료, 기술의 보다 광범위한 융복합 사업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격 정서 보살핌의 필요성과 효과에 관한 학술적 연구가 요구되는 지점이다.

마지막으로 셋째, 클라운 닥터는 비영리 사회공헌 봉사 재단에서 리쿠르트하고, 자격을 갖추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받고, 병원에 파견되어 재단으로부터 페이를 받는다. 그러나, 액터 닥터는 병원의 호스피스 자원봉사 활동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의료 자원봉사 활동으로 출발했다. 클라운 닥터와 액터 닥터가 유사한 소명의식에서 출발했지만, 다른 형태로 나아가는 배경에는 사회봉사와 기부 문화에 관한 시민 의식의 차이, 그리고 공적 자원 투입에 관한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과 견해가 있다. 호주의 오랜 기부 문화와 기부 관련 재단의 활동은 지자체 문화 관련 기관과 연극인 복지 단체의 공적 보조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황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적 방향을 제시해주었다.

#### 4) ‘액터 닥터’ 개념에 관한 인식과 수용

액터 닥터 프로그램 사업의 주최인 종로문화재단, 주관 단체인 한국배우협회, 그리고 지원 기관인 한국연극인복지재단 등의 단체가 액터 닥터 프로그램을 런칭한 배경에는 배우들의 재능과 수련을 활용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성격이 있다. 더불어, 액터 닥터 양성 프로젝트는 배우의 재능과 수련을 어떻게 배우의 복지와 연관하여, 실용적으로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일자리 창출에 관한 깊은 고민이 배어 있다. 액터 닥터가 의료 봉사자이면서, 동시에 전문가로서 인식되고 수용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의료법상 면허주의에 기본하고 있는 우리 의료 시스템에서 액터 닥터가 치료자를 의미하는 ‘닥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행위는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필자 강조]으로써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의료법 제 12조는 ‘의료인이 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 기술의 시행에 관한 법률’로서 의료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모호하게 ‘의료인의 행위’로 정의함으로써, 의료 행위는 의료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달려있다. 이에 따라, 의료법 제 8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죄를 명시하고 있다 [11].

필자는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이라는 법률적 어구에 주목한다. 액터 닥터의 행위, 즉 수행성은 ‘정서와 정서 지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숙련된 ‘경험’은 액터 닥터의 자격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배우에게 있어, 연기 훈련과 공연을 통한 경험이 재능보다 우선한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닥터’가 수련의 과정을 밟아야 비로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임상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배우는 훈련, 리허설, 공연 과정에서 정서 전문가의 과정을 수료하게 된다. 그러나, 액터 닥터가 극장에서 정서 전문가 과정을 수료했다고 하더라도, 수련 과정이 병원에서 재활용될 때는 거기에 맞는 재교육이 요구되며, 액터 닥터 프로그램은 이런 맥락에서 중요하다. 액터 닥터를 자격을 갖춘 ‘닥터’가 되게 하는 것은 배우의 재능이 아니라, 정서, 정서 지능, 그리고 정서 보살핌에 관한 과학적·경험적 지식, 오랜 수련, 그리고 재교육이기 때문이다.

## 2. 액터 닥터 개념화를 기초로 한 액터 닥터의 역할, 기능, 기술

지금까지 살펴본 액터 닥터의 개념 정의로부터, 액터 닥터는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지 지도의 윤곽을 그려보겠다. 액터 닥터는 21세기 새로운 직업관으로부터 기획되었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 직업을 선택하는 양상은 이제 하나의 직업을 평생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에 걸쳐 여러 개의 직업을 갖기도 하고, 동시에 여러 개의 직업을 갖는 라이프 스타일을 따른다. 액터 닥터는 이미 수련을 통해 획득한 지식과 경험을 또 다른 작업을 위해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21세기 직업관을 실현한다고 할 수 있다.

### 1) 놀이와 소통의 수행성 (performativity)을 통해 본 액터 닥터의 역할

필자가 인터뷰한 액터 닥터 송정아는 왜 배우가 정서 보살핌을 위한 최적의 후보자인지를 다시 확인해주었다. 송정아는 “환자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들이 보내는 표정, 제스처, 목소리 톤, 호흡, 자세를 통해 몸의 언어를 읽어내고, 그들이 느끼는 정서를 이해하고, 그들이 아무것도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면, 저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저 함께 있으면서 연결되었다는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송정아는 “이런 능력과 연습은 배우들이 늘 하는 일이잖아요”라고 말한다 [12]. 배우는 가상 세계에서 허구의 캐릭터를 ‘놀이’ (perform)하는 경험을 수도 없이 함으로써, 높은 정서 지능을 습득한다. 이러한 정서 지능은 배우가 다른 창작자들과 협업하면서 맺는 ‘관계’와 ‘소통’에 필수적이면서, 동시에 정서 지능을 재강화한다.

2021 액터 닥터 세미나에 함께 참여했던 뇌과학자이자 서울대 병원 신경과 의사인 이경민은 액터 닥터 대신에 액터 닥터 (an actor nurse) 개념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서 돌보미로서 액터 닥터는 간호사, 간병인, 호스피스 개념의 총합으로 규정되기 어렵다. 액터 닥터는 이 기존 의료 체계의 틈새에서, 자신의 위상을 포지셔닝할 수 있다. 액터 닥터는 분과적 의료 체계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영역에서 환자의 정서적 삶을 체크하고 돌본다. 신경과 의사 이경민 역시, 환자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질병으로, 또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도록 돌보는 것도 ‘닥터’의 책임이지만, 현재 우리 의료 체계에서는 무리라고 말한다.

이경민은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액터 닥터의 정서 보살핌이 너무 환자와 ‘밀착되어’ 있는 것에 관한 우려를 표했다 [13]. 필자가 액터 닥터를 생활 밀착형 정서 돌보미라고 개념화했을 때, 이 밀착은 환자와의 정서적 동일시를 의미하지 않는다. 필자가 이미지적으로 그린 ‘따뜻한 가슴을 지닌 정서 전문가’는 우리 마음의 작동 방식인 ‘감정이입’ (empathy)과 ‘비판적 투사’ (advisory projection)의 방법을 모두 사용한다. 우리의 마음은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태도를 통해, 세계와 타인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경민 역시, 바람직한 치료 과정을 위해, 두 가지 접근 방식이 모두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전문가의 심리적 거리두기를 강조했던 것이다. 액터 닥터는 감정이입과 거리 두기 기술을 숨겨 있게 구사하는 기능인으로서, 정서의 판단자도 아니며, 연민에 휘둘리지도 않아야 한다.

퍼포먼스 연구 전망에서 보면, 치료는 의료적 수행의 과정이며, 여기에는 행위자들인 건강 제공자 (a caregiver)들의 연합체가 작동한다. 의사는 치료 과정의 단독 행위자가 아니며, 간호사, 치료사, 의료 복지사 등과 상호 소통하는 의료 체계를 리드하는 의료 행위자이다. 필자는 치료 과정 자체가 소통의 체계이기 때문에, 이 건강 제공자들의 연합체와 환자를 매개할 에이전트(an agent)로서 액터 닥터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바람직한 결과를 위해, 치료 과정은 보다 관계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한다. 액터 닥터에게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진 연합체와 소통할 수 있는 매니저 (a manager) 역할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정리해서 말하면, 액터 닥터의 수행성은 정서적 삶을 호전시키는 ‘놀이’와 ‘소통’에 있다. 액터 닥터는 환자의 정서를 진단, 처방, 치료하는 직접 치료자가 아니라, 환자와의 놀이적 수행과 소통을 통해 정서를 보살피는 보완 치료자이다. 치료 과정에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관계의 망을 형성하며, 환자 가족과도 연계되어 있다. 액터 닥터의 역할 중에서, 기존 의료 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 가족의 정서 돌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액터 닥터 송정아는 환자의 가족들에게 잠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환자와 놀아주는 것만으로도, 가족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간접적으로 환자의 정서적 삶을 안정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밝힌다 [14]. 가족에 관한 돌봄은 액터 닥터의 역할이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공유하는 것이지만, 보다 친밀한 관계에 의한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액터 닥터의 소통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더욱 부각시킨다.

2) 인지과학의 패러다임으로 살펴본 액터 닥터의 기능, 정서 보살핌

액터 닥터의 기능이 전문적인 정서 보살핌이라고 하면, 정서 보살핌은 과학적으로 어떤 마음의 수행인가? 인지과학의 패러다임에서 ‘시뮬레이션’은 우리 마음의 작용을 가리키는 키워드이다. 간단히 말하면, 마음은 우리 뇌 어딘가에 세팅되어있는 정서를 ‘재현’ (representation)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과 현재적 맥락에서 ‘시뮬레이션’하는 것이다. 195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등장한 인지과학은 인간의 마음과 인지(이성, 정서, 감각)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21세기에 들어와 더욱 기대되는 발전을 하고 있다. 인지과학은 뇌과학을 기초로, 인지 철학, 인지 심리학, 인지 언어학, 신경 미학, 신경 경제학 등이 수렴하는 통섭적 학문이며, 퍼포먼스 연구에도 자주 소환된다.

액터 닥터의 기능은 선행 직업군인 ‘연극 치료사’를 떠올린다. 연극 치료사가 직업으로서 자리매김하는데, 치료의 전문성이 과학적 바탕에 근거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이슈였다. 연극 치료 분야의 장을 열었던 수 제닝스 (Sue Jennings)는 이러한 맥락을 짚어 냈고, 다양한 과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제닝스가 비록 지금은 뇌과학계에서 거의 폐기된 인간 뇌의 삼층구조(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인간의 뇌)를 적용하기도 하지만, 제닝스 또한 뇌의 삼층구조가 지나간 이론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제닝스는 6살까지 어린이의 발달 과정을 돕는 연극 놀이를 일컫는 ‘신경극 놀이’ (Neuro-Dramatic Play) 고안을 위해, 최신 신경과학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15].

연극 치료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치료의 과학적 접근이 액터 닥터의 의료 전문성의 바탕이 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 필자는 ‘액터 닥터’ 개념의 정립에 있어서, 왜 배우가 병원에서 정서 전문가로 일할 수 있는 최적의 후보인가를 인지과학적 근거에서 좀 더 세밀하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배우는 훈련과 공연 과정에서 다양한 인생을 시뮬레이션 (simulation) 함으로써,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환경, 그리고 그 상호작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는 직업인이다. 필자가 ‘연기의 과학’을 연구하기 위해 인용하는 인지과학의 ‘마음의 이론’ (the theory of mind)에 따르면, 배우는 등장인물의

가상적 환경과 조건에 자신을 대입함으로써, 등장인물의 경험과 연결된다. 배우는 등장인물의 마음에 접근할 때, 배우 자신의 마음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등장인물의 정서와 행동을 이해한다. 연기의 재능은 우리가 타인과 세계를 이해하는 보편적 마음의 능력인 투사를 하는 기초적 능력이기 때문에, 연기가 태어난 재능이 아닌, 훈련의 소산이라고 말하는 과학적 근거이다. 배우는 반복 훈련을 통해, 일반인들보다 높은 정서 지능 (Emotional Intelligence, EI)을 획득하게 되어, 감수성과 정서적 예민함의 지수 (Emotional Intelligence Quotient, EQ)가 높을 수밖에 없다. 배우는 수많은 경우의 수를 통해, 정서를 다양한 뉘앙스의 범주로 이해하고 구별한다.

포스트-팬데믹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 우울증’을 경험하고, 어느 때 보다 우리의 정서적 삶이 위협받고 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액터 닥터가 전문 기능인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통한 경험적 지식과 더불어, ‘정서’란 어떤 마음의 작용이며, ‘정서 지능’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연구해야 한다. 액터 닥터가 최신 뇌과학과 인지 심리학으로부터 정서와 정서 지능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개설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최근 정서에 관한 뇌과학과 인지 심리학 분야에서 유의미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리사 펠드먼 배럿 (Lisa Feldman Barrett)의 ‘구성된 정서 이론’은 액터 닥터 프로그램 교육 과정에 편입되기에 적합하다. 특히, 배럿이 임상 심리학자를 꿈꿨던 뇌과학자이기 때문에 정서에 관한 과학적 접근뿐만 아니라 정서를 어떻게 보살피야 하는가에 관한 임상적 측면에서도 지혜로운 조언을 주고 있다. 배럿의 ‘구성된 정서 이론’에서, 정서는 우리 뇌에 내장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바탕적인 신경망들이 다양한 세트를 형성하며 만들어내는 것이다. 정서는 우리 몸과 환경 사이의 관계를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의미를 구성하는 뇌의 예측 (prediction) 활동이다. 생화학적 이미지로 설명하면, 정서는 수많은 “뇌신경 세포들 (neurons)의 끊임 없는 점화를 통해 순간적으로 발생한다” [16].

배럿의 ‘구성된 정서’ 이론은 ‘연기의 과학’(science of acting)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필자에게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한다. 배럿의 주장은 인지 심리학자인 폴 에크먼(Paul Ekman)의 정서와 신체적 패턴에 관한 고전적 인지 심리학에 강한 이의를 제기한다. 배럿은 우리가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슬픔’, ‘행복’, ‘분노’, ‘놀라움’, ‘공포’ 또한, 특수한 문화적·사회적·상황적 구성(뇌의 예측)이라고 역설한다. 쉽게 말하면, 슬픔의 정서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보편적 정서라는 과학적 증거는 없으며, 더군다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짓는 보편적으로 슬픈 표정또한 없다고 주장한다.

배럿의 ‘발생으로서의 정서’는 액터 닥터의 정서 보살핌이 왜 환자와 밀착하여 때로는 공감하고, 때로는 관찰이 필요한지를 설명해줄 수 있다. ‘구성된 정서’는 정서를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일 대 일 대응의 신체 패턴 또는 “신체 지문”이 없음을 뜻한다. 동일한 정서 범주가 다양한 신체적 반응, 즉, 표정, 제스처, 목소리의 톤, 자세, 몸짓, 호흡 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신체에 나타나는 표식들로부터 완벽하게 정서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배럿은 정서와 신체적 표정의 관계는 일 대 다 일 수도 있고 다 대 일 일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반면에, 에크먼은 인간의 5가지 보편 정서 정도는 일종의 신체적 패턴(‘보편적’ 미세 얼굴 표정)을 동반한다고 했으나, 배럿은 어떠한 정서도 신체적 지문과 같은 것은 동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7].

정서를 읽어낼 수 있는 신체적 코드가 없는 상황에서 액터 닥터는 전문가로서 어떻게 환자와 정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가? 그 답은 이미 앞에서 배우 훈련의 예시를 통해 밝힌 것처럼, 수많은 훈련 과정에서 수많은 상황과 조건에 놓임으로써, 배우의 몸이 경험적으로 체득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정서 지능’이라고 한다. 의사가 회진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입원 환자의 전반적인 신체적·심리적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앞으로의 치료 과정을 위해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의사, 간호사, 치료사가 환자를 밀착해서 케어하기는 어렵다. 정기적 회진 때, 가끔, 환자의 표정, 제스처, 몸짓을 체크하는 것으로는 환자의 정서를 해석하는 것은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 오랫동안, 정서 지능을 수련한 액터 닥터는 환자의 생활에 밀착해 있으므로, 대화와 놀이를 통해 교감하며, 정서의 뉘앙스를 보다 세밀하게 체크할 수 있고, 환자의 정서적 역동성과 뉘앙스에 관해 의료진과 소통할 수 있다.

액터 닥터가 보살피는 장기 입원 환자들은 통증,

스트레스, 고립감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울, 불안, 두려움에 시달린다. 정서적 삶과 신체적 건강이 유리될 수 없는 것이라는 뇌과학적 근거를 밝히고 있는 매튜 리버먼(Matthew Liberman)은 “사회적 고통과 신체적 고통이 활성화되는 신경회로가 같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느끼는 고통은 ‘그저’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임을 의미한다 [18]. 배럿은 우리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뇌가 연결되어 있고 서로 미러링하면서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19]. 뇌의 동기화는 돌봄 제공자가 고통스러워하는 환자의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고통이 줄어들 수 있는 신경과학적 토대이다. 배럿과 마찬가지로, 리버먼 또한, “사회적 연결을 경험하려는 욕구는 인간의 기본 욕구”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타인의 고통에 감정이입함으로써, 타인의 경험에 연결된다 [20]. 리버먼에 따르면, 이 사회적 뇌 덕분에, 우리가 연극, 뮤지컬, 드라마, 리얼리티 예능, 잡담 프로그램 등을 좋아하는 것이다 [21].

### 3) 사회적 뇌, 정서 지능, 그리고 액터 닥터의 기술

정서 지능이 활발하게 발휘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액터 닥터는 환자를 압도하는 우울, 불안, 그리고 두려움의 부정적 감정을 환기하고 조절할 수 있는 ‘놀이’와 ‘소통’을 통해, 환자가 정서 지능을 활용해서 환경과 현재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게 돕는다. 배럿과 리버먼 같은 뇌과학자들이 과학적 증거를 통해, 정서 조절에 관해 주는 팁은 심리 치료 기술의 기초적인 방법론이기도 한데, 배럿은 이것을 “정서 명명하기”라고 부른다 [22]. 이는 일종의 정서와 거리를 두는 객관화 작업으로, 많은 임상 심리 치료사들이 사용하는 기술이다. 배럿은 특히, 정동 (affect)이라고 과학자들이 부르는 무드, 또는 기분은 정서가 몸의 경험 (embodied emotion)이라는 단적인 증거라고 말한다. “정동은 몸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느낌”으로 정서가 아니지만, “모든 기쁨과 슬픔의 근원”이다 [23]. 그러면서 동시에 정동은 정서의 여파로 지속되기도 한다. 그래서, 심호흡, 명상, 요가 같은 신체 활동이 건강한 정서적 삶을 위해 효과가 있다고 밝힌다. 배럿은 또한, 정서가 마음의 시뮬레이션이라는 사실에서, 긍정적 경험의 일기를 써보는 것을 추천한다 [24]. 이런 일지 쓰기는 배우들이 역할에 감정이입하기 위해 상상력을 발휘해서, 등장인물로서 일기를 쓰는

연기 방법론으로 실제 쓰이고 있다.

예일대학교 정서 지능 센터를 운영하는 인지 심리학자인 마크 브라켓 (Marc Brackett)은 배릿의 정서에 관한 보편/문화 논쟁에서, 에크먼의 ‘보편적’ 정서의 존재에 동의하기는 하지만, 배릿의 ‘구성된 정서 이론’이 정서적 삶을 위해 가치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고 여긴다. 브라켓에 따르면, 정서는 모두 우리 몸의 경험이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과 같은 정서도 ‘나쁜 정서’가 아니며, “그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브라켓은 ‘정서 지능’을 개념화한 피터 샬러베이 (Peter Salovey)와 존 메이어 (John Mayer)를 인용해서, “정서 지능은 정서를 정확히 인지하고, 평가하고, 표현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브라켓은 “불안은 불확실성에서 오고, 두려움은 위협을 느낄 때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말하면서, 타인의 정서에 대해 지적하고 비난하는 심판자가 되기보다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학자가 되어야 한다고 충고한다 [25].

브라켓은 정서 지능은 앞으로 미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될 것이며, 정서 지능과 관련한 직업이 현재,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음을 지적한다. 브라켓은 정서 지능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습득된 것임을 강조하며, 정서 지능 관련 다섯 가지 기술을 제시한다. RULER는 정서 인식하기 (Recognizing), 정서 이해하기(Understanding), 정서에 이름 붙이기 (Labeling), 정서 표현하기 (Expressing), 정서 조절하기 (Regulating)인데, 액터 닥터의 정서 보살핌의 기술적 측면에서 실제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26].

한편, 브라켓은 RULER의 중심축에 정서를 인식하고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인 ‘무드 미터’ (mood meter)를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무드 미터는 인간 정서에 두 가지 특성인 쾌적함과 활력을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해서 그래프처럼 작성된 색깔 그림판이다. 쾌적함은 녹색, 불쾌감은 노란색, 활력은 빨간색, 비활성은 주황색으로 표시된다. 이 무드 미터는 정서의 웨이드를 직관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100여 개에 달하는 정서의 뉘앙스를 언어적으로 구별하고 있다 [27]. 무드 미터와 같은 정서 측정기와 더불어, 예술가들이 경험을 통해 정서를 이해하고 정서의 신체적 징후를 세밀하게 묘사한 ‘정서 묘사 사진’을 참고할 수 있다. 안젤라 애커만 (Angela Ackerman)과 베카 푸글리시 (Becca Puglish)와 같은 작가들은 경험에 기초해서, 130

개의 정서 표현법을 개발하고 이것을 “정서 묘사 사진 사용법”이라고 불렀다 [28]. 애커만과 푸글리시는 130개에 달하는 정서에 관하여, 몸짓, 생체 반응, 심리 반응, 징후 등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29]. 필자는 이러한 정서 관리 도구는 진단 도구의 성격보다는, 액터 닥터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통 기술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4) 액터 닥터의 (원격) 정서 보살핌과 뉴미디어 테크놀로지의 활용

포스트-팬더믹 상황은 정서 치료에 관한 사회적 요구를 더욱 증폭시켰다 [30]. 더불어, 포스트-팬더믹 상황에 의해 더욱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의 시대적 맥락에서, 원격 정서 보살핌 (telepresent emotional care)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액터 닥터의 소통과 보완 치료 기술로서, 메타버스, XR 실감 기술 등의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활용은 선택이 아니라, 이제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자크 아탈리 (Jacques Attali)와 같은 학자들은 인공지능 메타버스가 사람들을 가상 세계에 과몰입하게 함으로써, 편리함을 얻는 대신에 인공지능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역설이 초래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30]. 필자는 이러한 학자의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면서, 메타버스를 어떻게 ‘선한’ 기술이 되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게더타운, 제페토, 로블록스, 이프랜드와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은 환자와 액터 닥터가 놀이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보다 객관화된 아바타를 통해 비대면 소통을 진행하는 ‘선한’ 보완 치료 도구가 된다. 특히, 장기 입원 어린이 환자들에게, 그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인 ‘뽀로로,’ ‘엘사,’ ‘콩순이,’ ‘아기 상어,’ 등과 메타버스 공간에서 노는 것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위로와 공감을 얻는 치료의 과정이 될 수 있다.

VR 실감 기술은 이미 많은 병원과 요양 기관에서는 뇌과학적 근거에서, 통증, 트라우마, 재활 치료, 환자 상담 세션, 기분 전환용 놀이, 가상 수술실 체험, 등에서 환자 치료에 적극적으로 VR 실감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메타버스와 마찬가지로, VR 기술이 맹목적으로 수용되기보다는, VR이 초래할 수 있는 윤리적·사회적 이슈들이 신경과학, 인간공학, 생명 공학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31].

이러한 배경에서, VR에 관한 과학, 의료, 인문학, 산업의

통섭적 접근이 필요하다. 필자가 인터뷰한 신경과 의사 이경민과 VR 테크 업체 대표 최동훈은 뇌과학에 기초한 VR 기술이 의료 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진술한다. 이경민은 뇌과학을 기초로, 의료와 디지털 게임을 융합한 VR 의료 기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다 [32]. 최동훈 또한 재미적인 요소에 관한 연구와 뇌과학과 AI 기술을 접목한 VR 재활 치료 기기를 개발해서 병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매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다고 한다 [33]. <버추얼 이라크>와 같은 환자의 심각한 트라우마, 치매, 재활 등의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가 사용해야 하지만, 환자의 통증, 우울감, 불안, 그리고 두려움의 정서를 보살피는 데는, 액터 닥터가 VR 치료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의료와 복지 차원에서 VR 기기의 보완 치료 효과는 국내외에서 보고된 사례가 다수 있다. VR은 ‘레저용 치료 기기’로서도 병원과 호스피스 시설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34].

앞서 살펴보았던 뇌과학을 적용하면, VR 의료가 가능한 것은 우리 뇌가 실제와 가상을 구분하지 않고 시물레이션함으로써, 의미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35]. VR 시물레이션으로 눈발에서 눈을 던지는 게임을 하는 가상 환자는 통증 수치가 줄게 된다. 직장 상사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인 직원은 가상의 아름다운 해변을 거닐며, 평온함, 안정감, 청량감을 느낌과 동시에 부정적 정서가 물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요양 시설에 고립되어있는 장기 거주 환자는 VR 기술을 사용해서 가상의 공간을 공유하는 경험을 통해, 공동체감을 느낀다는 보고도 있다 [36]. 뇌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우리 몸은 통증, 스트레스, 정서를 따로 구분하는 신경망 세트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신경망 세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회적 고통은 “은유가 아닌 신체적”이라고 말한다 [37]. 이런 배경에서, 액터 닥터는 VR을 훈련용으로 사용하여 사회적 고통을 느끼는 환자의 부정적 스트레스를 줄여서 긍정적인 스트레스로 전환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38].

### III. 결 론

액터 닥터의 개념화 지도를 요약하면, 액터 닥터는 배우 직업을 병행하는 이중 직업인으로서, 병원에서 생활 밀착형 정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서 돌보미이다.

액터 닥터는 환자의 정서 보살핌을 위해, 책을 읽어주거나, 구연동화를 들려주고, 함께 그림책의 색칠을 하기도 한다. 음악을 함께 듣고, 디지털 게임을 함께 하는 게임 메이트가 되어주기도 하고, 메타버스 공간에서 아바타로 만나 놀기도 한다. 웃음을 유발하는 짧은 코미디 공연을 보여줘서 환자의 기분을 환기하기도 하며, 진지한 대화도 나눈다.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하는 환자에게 VR 수술실을 경험하는 것을 도와주고, VR 가상 여행의 동반자가 돼주기도 한다.

액터 닥터는 환자와 환자의 가족 입장에서, 의료진과 소통하는 에이전트의 역할을 한다. 액터 닥터는 치료의 방법을 선택할 때, 의료진이 눈치챌 수 없는 환자의 선호도에 관한 힌트를 줄 수도 있다. 액터 닥터의 정서 보살핌은 과학적 바탕에 근거하지만, 액터 닥터는 오랜 경험을 통해 획득한 몸의 지식을 통해, 필요에 의해서 아무 것도 하지 않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액터 닥터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무엇’을 ‘왜’ 하는지 알고, 잘 훈련된 정서 전문가여야 한다는 것이다.

배우 훈련 과정부터, 무대 위, 우리 삶의 현장, 그리고 병원에서 정서는 우리를 압도하기도 하지만, 정서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은 우리를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향하게 한다. 필자는 언젠가는 의사는 액터 닥터 처방전을 내고, 환자들은 의료 보험 보장을 받는 생활 의료가 일상화되는 ‘건강 사회와 생활 복지’의 비전을 그려본다. 호스피스 활동가들이 학제적 전문 완화의료 체계를 구체화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의 적용을 끌어내는 성과를 이뤄냈지만 (2015년), 사랑과 배려의 호스피스 정신을 우선하는 소명의식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39]. 이와 마찬가지로, 액터 닥터의 전문성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정서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고민과 연구를 담은 필자의 논문이 액터 닥터에 관한 본격적 학술 연구로서, 진화하는 프로젝트인 액터 닥터 사업의 지도를 그려내는 데 일조하고, 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하는 촉진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 본 논문이 액터 닥터의 사회적 필요성과 효용에 관한 공적 토론을 위한 기초 자료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획서의 의미를 획득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References

- [1] Rebeca Carr, Actor Doctor On-line International Zoom Seminar Done on October 27, 2021.
- [2] David Symons & Tony Warner, Actor Doctor On-line International Zoom Seminar Done on October 27, 2021.
- [3] Benjamin Wihstutz, *Performance and the Politics of Space*, Routledge, 2013, pp. 1-12.
- [4] J. H. Lee, "Have you heard about Actor Doctors?," *Newsis*, September 23, 2021.
- [5] Cynthia Klestinec, "A History of Anatomy Theatres in Sixteenth Century Padua." *Journal of the History of Medicine and Allied Sciences*, Vol. 59, July 2004, p. 380.
- [6] Celia Falletti, Gabriele Sofia, and Victor Jacono eds., *Theatre and Cognitive Neuroscience*, J. H. Park, (trans.), Seohun, 2018, p.267.
- [7] M. R. Park, *Emotional Model in Dramatherapy*, Hakjisa, pp. 88-118.
- [8] I. S. Lee and H. S. Jung, *Laughter Therapy is a Science*, Daumsangkak, 2012, pp. 04-37.
- [9] Don Colbert, M.D., *Deadly Emotions*, Mission World Library, 2006, p. 253.
- [10] G. I. Lee, An Interview with Song Jung A Done on March 3, 2022.
- [11] H. Y. Lee, *Legal Issues and Problems of Digital Health Care*, Jipmundang, 2021, p. 69.
- [12] G. I. Lee, An Interview with Song Jung A Done on March 3, 2022.
- [13] G. I. Lee, An Interview with Kyung Min Lee Done on February 17, 2022.
- [14] G. I. Lee, An Interview with Song Jung A Done on March 3, 2022.
- [15] Sue Jennings, *Healthy Attachments and Neuro-Dramatic Play*, H. Y. Lee and D. H. Hwang, (trans.), Woolryuk, 2020, pp. 41-47.
- [16] Lisa Feldman Barrett, *How Emotions are Made*, H. Y. Choi, (trans.), Thinking Lab, 2017, p. 62
- [17] Lisa Feldman Barrett, *How Emotions are Made*, H. Y. Choi, (trans.), Thinking Lab, 2017, pp. 22-54.
- [18] Matthew Liberman, *Social Brain*, H. Y. Choi, (trans.), Sigongsa, 2015, p. 45.
- [19] Lisa Feldman Barrett, *Seven and a Half Lessons about the Brain*, J. Y. Byun, (trans.), Gilbut Publishing Co., 2021, p. 128.
- [20] Matthew Liberman, *Social Brain*, H. Y. Choi, (trans.), Sigongsa, 2015, p. 420.
- [21] Matthew Liberman, *Social Brain*, H. Y. Choi, (trans.), Sigongsa, 2015, p. 450.
- [22] Lisa Feldman Barrett, *How Emotions are Made*, H. Y. Choi, (trans.), Thinking Lab, 2017, p. 329.
- [23] Lisa Feldman Barrett, *Seven and a Half Lessons about the Brain*, J. Y. Byun, (trans.), Gilbut Publishing Co., 2021, p. 154.
- [24] Lisa Feldman Barrett, *How Emotions are Made*, H. Y. Choi, (trans.), Thinking Lab, 2017, p. 388.
- [25] Marc Brackett, *Permission To Feel: The Power of Emotional Intelligence To Achieve Well-Being and Success*, Seladon Books, 2019, pp. 50-51.
- [26] Marc Brackett, *Permission To Feel: The Power of Emotional Intelligence To Achieve Well-Being and Success*, Seladon Books, 2019, p. 55.
- [27] Marc Brackett, *Permission To Feel: The Power of Emotional Intelligence To Achieve Well-Being and Success*, Seladon Books, 2019, pp. p. 75.
- [28] Angela Ackerman and Becca Puglish, *Emotion Thesaurus: A Writer's Guide To Character Expression*, Infinity Books, 2019, pp. 65-70.
- [29] Angela Ackerman and Becca Puglish, *Emotion Thesaurus: A Writer's Guide To Character Expression*, Infinity Books, 2019, pp. 71-591.
- [30] H. R. Park, "A Study on Emotional Healing Trends after 2005,"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IJACT)*, Vol. 9, No. 3, 2021, p. 90.
- [31] Jacques Attali, *Transformation to Life Economy*, Y. R. Yang, (trans.), The Korean Economic Daily & Business Publication, Inc., 2020, pp. 173-174.
- [32] G. I. Lee, An Interview with Lee Gyeong Min Done on February 17, 2022.
- [33] G. I. Lee, An Interview with Choi Dong Hun Done on March 2, 2022.
- [34] Claire Ferguson, Maria Shade, Julie Blaskewicz Boron, Elizabeth Lyden, and Natalie Manley, "Virtual Relity for Therapeutic Recreation in Dementia Hospice Care: A Feasibility Study," *American Journal of Hospice & Palliative Medicine*, Vol. 37, No. 10, 2020, p. 814.
- [35] Kathryn Elise Harrison, *Sharing Cyberspace: Fostering Relationship Maintenance in Residential Care through VR*, A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June 2019, p. 8.
- [36] Kathryn Elise Harrison, *Sharing Cyberspace: Fostering Relationship Maintenance in Residential Care through VR*, A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June 2019, p. 3.
- [37] Antonio Damasio, *Feeling and Knowing*, H. S. Ko, (trans.), Sangjisa, 2021, pp. 128-129.
- [38] Gregory Frichione, Ana Ivkovic, and Albert Yeung, *The Science of Stress*, J. A Seo, (trans.), Hansol Academy, 2017, pp. 48-49.
- [39] H. Jo, *Hospice & Palliative Care*, Gyechukmunwhasa, 2017, p. 58.